

프로야구, 막판 치열한 2~5위 싸움...이제 연패는 치명적

2위 LG부터 5위 두산까지 승차 1.5경기에 불과

LG 남은 7경기 중 3승만 하면 자력으로 우승 차지

'2020 신한은행 올 KBO리그'가 시즌 막판을 향해가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포스트시즌을 확정할 팀들이 치열한 순위 싸움을 벌이고 있다.

NC 다이노스(80승4무52패)가 창단 후 첫 정규리그 우승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2위 LG 트윈스(77승3무59패), 3위 KT 위즈(76승1무59패), 4위 키움 히어로즈(79승1무62패), 5위 두산 베어스(74승4무59패)가 살얼음판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NC의 우승 매직넘버는 '3'이다. 남은 7경기 중 3승만 하면 자력으로 우승을 차지할 수 있다. 경쟁팀이 패할 수록 매직넘버는 줄어든다.

2위 LG부터 5위 두산까지의 승차는 불과 1.5경기다. 하루가 다르게 순위가 요동치고 있다. 현재 5위 두산이 2위로 시즌을 마칠 수도 있고, 누가 5위가 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시즌이다.

올해 5경기를 남겨두고 있는 LG는 20일 KT전을 제외하면 2~5위 경쟁팀들과의 경기가 없다. KT전은 반드시 이겨야하며, 하위팀들과의 경기에서도 배수의 진을 쳐야 한다.

자칫 연패로 이어질 경우, 치명적인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4, 5위로 내려가는 순간, 한국시리즈 우승은 물 건너갈 수도 있다.

KT 역시 마찬가지다. 사실상 창단 첫 포스트시즌을 바라보고 있지만, 내진김에 2위 자리를 노리고 있다.

때문에 20일 LG전, 22일 두산과의 일전이 중요하다. 나머지 경기는 하위팀들과의 경기지만, 역시 방심할 수 없다.

동구장을 안방으로 사용하는 키움은 10개 구단 중 가장 적은 2경기밖에 남지 않았다. 남은 2경기를 모두 이겨 시즌 81승을 거둔 후 나머지 팀들이 부진한 성적을 거두기를 바라야 하는 상황이다.

키움은 23일, 30일 두산과의 중요한 일정을 남겨두고 있다. 키움은 올해 두산과의 상대전적에서 8승1무5패로 강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한국시리즈 우승팀 두산은 7경기를 남겨두고 있다. 남은 경기를 모두 이긴다면 2위를 노려볼 수도 있지만, 2~5위 팀 중 승수가 가장 적다. 불펜진이 다소 불안한 상황에서 4승 이상의 성적을 올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5위에 머물 경우 제야무리 두산이라도 한국시리즈 진출을 장담할 수는 없을



것이다.

2~5위 팀들이 하위팀들에 달미를 잡히는 경우, 충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에이스를 앞세운 하위팀들의 강한 저항도 시즌 막판 재미를 더할 수도 있다.

10경기씩 남겨두고 있는 6위 KIA 타이거즈(69승65패)와 7위 롯데 자이언츠(68승1무65패)도 수치상으로 포스트시즌 진출은 가능하다. 단 특정 팀의 연패가 필수 조건이다.

김민정기자



전남체육회 바이애슬론팀 선수단이 전남체육회관에서 김재무 회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첫 줄 왼쪽부터 김상욱감독, 안나, 에카테리나, 김재무 회장, 추경미, 김미선 코치, 둘째 줄 스타로두베츠, 랍신, 전제혁, 통역)

전남체육회, 바이애슬론팀 창단한다

대한체육회 동계 종목 실업팀 창단 지원 사업 선정

전라남도체육회(회장 김재무)가 동계 스포츠인 바이애슬론 실업팀을 창단한다.

전라남도체육회는 오는 23일, 전남체육회관 1층 다목적체육관에서 전라남도체육회 바이애슬론팀 창단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남체육회의 바이애슬론팀 창단은 지난 6월, 대한체육회의 동계종목의 저변확대와 경기력 향상을 위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창단 지원금 2억8천5백만원에 대한체육회로부터 지원받아 창단하게 됐다.

이번에 창단할 전남체육회 바이애슬론팀은 전 대한바이애슬론연맹 국가대표 감독을 역임한 김상욱 감독(50)이 지휘봉을 잡고 바이애슬론남자 국가대표 티모페이 랍신(32), 스타로두베츠(27), 전제혁(33)과 여자 국가대표 프롤리나 안나(36), 에카테리나(30), 추경미(33) 등 남자 일반부 3명, 여자 일반부 3명 총 6명의 선수단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로서, 지난 2월 제101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랍신과 에카테리나는 2관왕을 달성했고, 안나 또한 4년간 금메달 5개를 따내는 명실상부한 국가대표

에이스로 남·여팀 모두 최강 전력을 구축했다.

특히 러시아 출신 4명의 선수는 모두 한국으로 귀화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이다.

바이애슬론은 동계 볼모지 전남에서 희망의 새싹을 피워내고 있는 종목이다.

전남체육회는 바이애슬론 남·여 일반부 팀 창단을 통해 동계종목 불모지나 다름없는 전남의 열악한 저변을 확대하고, 초·중·고·대학팀 창단 동기부여를 통해 연계육성 기반 구축을 다져갈 계획이다.

또한 다수의 국가대표 선수들을 통해 전남을 대표하고, 전남체육의 위상을 높일 준비를 마쳤다.

김상욱 감독은 "우리 선수들은 대한민국 국적의 선수로서 전남을 대표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바이애슬론 선수로 땀방울을 흘릴 것"이라며 "이번 바이애슬론 팀 창단을 통해 전남에서 다른 동계스포츠 팀 또한 창단하고 저변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소망 한다"고 말했다.

정승호기자

김광현, 자가격리 마치고 23일 기자회견



메이저리그(MLB)에서 성공적인 데뷔 시즌을 치른 김광현(32·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자가격리를 마치고 공식 인터뷰에 나선다.

김광현의 매니저먼트사 브랜뉴스포츠는 20일 "김광현이 23일 서울 여의도 컨싱턴

호텔 센트럴파크에서 인터뷰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김광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침에 따라 2주간 격리를 했다.

자가격리를 마친 김광현은 메이저리그에서 뛰 한 시즌을 돌아보고 2021년에 대한 포부를 밝힐 계획이다.

김광현은 SK 와이번스에서 2019시즌을 마치고 세인트루이스와 2년 800만달러에 계약했다. 올해 코로나19의 대확산으로 메이저리그 개막이 늦어졌지만,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 미국에서 컨디션을 조율했다.

한편, 기자회견은 MBC 스포츠플러스를 통해 생중계 된다.

서선욱기자

수술대 오르는 KGC인삼공사 정호영 "다음 시즌 건강하게"

개막전 무릎 다쳐 시즌아웃

개막전에서의 큰 부상으로 시즌 아웃의 불운을 겪은 V-리그 여자부 KGC인삼공사 센터 정호영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

정호영은 지난 19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 만큼 많이 복잡하고 속상하다"면서 답답한 심정을 표출했다.

정호영은 18일 IBK기업은행과의 홈 개막전에서 점프 후 착지를 하다가 무릎을 다쳤다. 불안정한 착지로 무릎이 완전히 뒤틀린 정호영은 들것에 실려 코트를 빠져나갔다.

김진 결과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으로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최소 6개월의 재활이 필요해 사실상 시즌 내 복귀는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시즌 신인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프로에 뛰어들 정호영은 적응기를 마치고 올 시즌 도약을 꿈꿨지만 예기치 못한 부상에



실려나가는 정호영. (사진=한국배구연맹 제공)

잠시 쉬어가게 됐다.

정호영은 "하루 빨리 수술해서 다음 시즌 더 건강하고 활기찬 배구를 보여드리겠다"

면서 "올 시즌 센터로서 모습을 기대하신 많은 팬들을 실망시켜 죄송하다"고 적었다.

정승호기자

굴러온 복덩이 변준형 "드래프트 순위보다 생존이 중요"

데뷔 3년차 가드 변준형, 평균 12.8점 6.8어시스트로 필필

프로농구 안양 KGC인삼공사의 가드 변준형(24·188cm)이 일취월장한 기량으로 시즌 초반 '핫가이'로 자리매김했다.

변준형은 2020~2021시즌 초반 5경기에서 평균 26분39초를 뛰며 12.8점 6.8어시스트(2위) 1.6스틸(7위)로 공수에서 제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

10일 서울 삼성전에서 17어시스트, 18일 울산 현대모비스전에서 6스틸을 올렸다. 모두 자신의 한 경기 최다 기록이다.

지난 시즌에는 경기당 7.3점 2.4어시스트를 기록했다.

김승기 감독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변준형이 자리잡으면서 인삼공사는 더욱 짜임새 있는 전력을 기대하게 됐다.

변준형은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지만

승리할 때의 기분이 정말 좋다. 점점 손발이 잘 맞는다. 재미있는 농구를 하고 있다"고 했다.

볼 핸들링 능력이 탁월하고, 스피드와 단단한 몸을 보유했다. 스텝백 점프, 유로스텝 등 개인 기량이 뛰어나 공격력 가드로 정래가 밝다는 평가다.

그는 "슈팅 연습을 할 때, 스텝백을 포함해 무빙슛, 세트슛 모두 고르게 훈련하고 있다. 유로스텝은 아직 부족하다. 김선형(SK) 선배를 보고 따라하려고 노력 중이다"고 했다.

돌파와 슛을 겸비해 승부처에서 주요 공격 옵션으로 활용된다. 과거 KGC인삼공사의 우승을 이끌었던 이정현(KCC)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다.

변준형은 "아이슬레이션 공격은 감독님의 지시다. 확실하게 끝맺음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는 말씀을 하셨다. 중요한 역할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경기 마지막에 개인기를 선보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재미를 느낀다"고 했다.

화려한 개인기가 미국프로농구(NBA)의 카일리 어빙(브루클린)을 연상시켜 '코리아 어빙'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KBL에서는 김선형, 허훈(KT), 김낙현(전자랜드)의 플레이를 선호한다.

변준형의 이름이 나오면 어김없이 부산 KT가 따라 나온다. 2018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 지명권을 얻은 KT가 유력한 1순위로 거론된 변준형을 지명하지 않고 박준영을 택했기 때문이다. 당시 뒷말이 무성했다.

신인상은 변준형의 몫이었다. 박준영이 여전히 적응에 애를 먹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때문에 인삼공사 팬들은 변준형을 '굴러온 복덩이'로 여긴다.

김미희기자

전라남도 모터사이클 페스티벌 성료

전국 150팀 600여명 선수들 참가

영암군은 '2020 전라남도 모터사이클 페스티벌'이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국제공인 1등급 경주장인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10월 16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된 이번 대회는 모터스포츠의 복합문화 발전을 위해 매년 개최하는 모터사이클 종합스포츠 대회로 전국 150팀 6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

하였다.

메인 클래스인 '8시간 내구레이스'를 비롯해 국내 최고 수준의 프로대회인 '테이스트 오브 영암', 전세계 최고급 모터사이클 브랜드인 '두카티 PP CUP' 등 국내 정상급 모터사이클 레이스를 진행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무관중대회로 개최하여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대회를 생중계로 방영하여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대회 시상식에 참석한 전동평 영암군수는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의 활용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기자